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김중경¹, 김원종², 이선주^{1*}

¹김천대학교 간호학과, ²을지대학교 간호대학

Correlation of Self-Efficacy,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Nursing Students

Jung Kyung Kim¹, Won Jong Kim², Sun Ju Lee^{1*}

¹Department of Nursing, Gimcheon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자는 K도에 소재하는 4년제 간호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t-test, ANOVA,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3.07 \pm .39$ 점, 스트레스 대처 $2.15 \pm .24$ 점, 대학생활적응 $3.32 \pm .49$ 점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서 전공 만족과 학과 지원동기, 음주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 적응력은 전공 만족이 높을수록, 지원동기가 확고한 편이 보통인 경우보다, 대인관계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아 성공적 대학생물 및 스트레스에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stress coping, and colleg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extracted from students at four-year nursing colleges in K province,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October 1 to December 10, 2018. Data analysis was done using the SPSS 22.0 program,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earson's correlation,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self-effica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as $3.07 \pm .39$, stress coping was $2.15 \pm .24$, and college adaptation was $3.32 \pm .49$.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llege life adaptation to stress coping, depending on major satisfaction, support motivation, and drinking. The higher the subject's self-efficacy and stress coping level, the higher the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major satisfaction, academic support motivation, and drinking.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upport program to strengthen the ability to cope with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Keywords : Academia-Industrial, Nursing,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Stress coping

본 논문은 김천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gc18034).

*Corresponding Author : Sun-Ju Lee(Gimcheon Univ.)

email: wjtkfd77@naver.com

Received April 2, 2020

Revised May 18, 2020

Accepted July 3, 2020

Published July 31, 2020

1. 서론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시기로 개인에게 있어 취업과 정체성을 확립시켜 사회로 나아가갈 준비단계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1]. 따라서 대학생활의 적응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2].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2015년 4.97%에서 2017년 5.1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탈락 사유는 자퇴가 가장 많은 원인으로 나타났다[2].

특히 간호학과는 전문직 간호사 배출을 목적으로 타과에 비해 높은 난이도의 학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학업 난이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서는 저학년인 경우 자신감 저하와 낮은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고학년인 경우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3].

이러한 대학생활 적응은 개인 및 대학생활 전반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와 환경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과[4] 상황에 대처하는 반응으로 이는 간호사로서 임상에서 근무할 때에도 개인적, 사회적 삶에 대한 적응 영향을 미친다[5].

대학생활 적응은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자기효능감과 높은 관련이 있다[6].

자기효능감이란 개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 신념 및 지각으로 대표적 요인으로 자신감이 해당된다[7].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주어진 과제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하며, 또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성숙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8].

한편, 스트레스 대처 또한 대학생활 적응과 많은 연관성을 보이는데 스트레스가 높은 간호대학생은 자기효능감과 자존감 낮았고 이는 대학생활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9].

스트레스는 개인적 성향과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고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개인의 대처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즉,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대처가 대학생활에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10].

최근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 가운데 개인의 적응을 예측해 주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를 들 수 있다[11].

이에 급속하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간호대학생이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지각, 즉 자기효능감이 선행되어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12].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은 개인 내, 외적으로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에게 대처능력과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대학생활적응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7], 감성지능[13], 학업스트레스[14], 전공만족도[15] 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으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Jung[16]의 연구 외에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들의 학과 적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10월 1일에서 2019년 12월 10일 까지 K도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 간호학과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에게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여부는 자발적 서면동의로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 도중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에 참여를 한 대상자에게는 자료 수집 후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총 130명의 응답자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122명이었다.

연구 표본 크기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하여 119명이 산출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98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23문항의 척도를 Hong등[17]이 일부 수정하고 번안하여 타당도 검증 후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 17문항과 대인 관련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 6문항의 총 2개 영역,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13개의 부정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ong등[17]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2$ 이었다.

2.3.2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 대처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Coping Strategy Indicator: CSI)를 Shin & Kim[18]이 번안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K-CS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사회적 지지 추구' 11문항, '문제해결중심' 11문항, '회피중심' 11문항의 총 3개 영역,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6개월간 일어났던 스트레스 사건 중 한 가지를 회상 하면서 실제 취했던 대처 반응을 사용한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1점부터 "많이 사용하였다" 3점까지의 3점 리커트 척도로, '회피중심'의 11개 문항은 부정문항으로 역환산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혜진과 김창대(2002)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 .84$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9$ 이었다.

2.3.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Jung & Park[11]이 개발한 대학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대인관계' 4문항, '학업활동' 4문항, '진로준비' 4문항, '개인심리' 4문항, '사회체험' 3문항의 총 5개 영역,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은이와 박용환(2008)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대처, 대학생활의 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3)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대처, 대학생활의 적응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4)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로 확인하였다.
- 5)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대처 및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나이,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결과 나이는 26세 이상이 21~25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5.547, p=.005$). 스트레스 대처는 지원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225, p=.025$). 대학생활 적응은 음주, 전공만족, 지원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결과 음주는 '마셨는데 지금은 안마신다', '지금도 마신다'가 '전혀 안 마신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10.094, p<.001$). 전공만족은 '만족', '매우만족'이 '불만족', '보통'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4.875, p<.05$)(Table 1).

3.2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대처,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07점이었고, 스트레스 대처는 3점 만점에 평균 2.15점 이었으며, 대학생활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2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Differences between self-efficacy, stress response,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oping and degree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n=12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lf-Efficacy		Stress cop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Age	20≥	72(59)	3.12±.37	5.547 (.005)	2.16±.24	.183 (.833)	3.31±.54	0.012 (.988)
	21~25 ^a	48(39.3)	2.96±.38		2.14±.25		3.32±.42	
	26≤ ^b	2(1.6)	3.72±.28		2.23±.15		3.37±.0	
Degree	2-year diploma ^a	67(54.9)	3.17±.42	6.040 (.003)	2.20±.25	3.682 (.028)	3.31±.49	1.367 (.259)
	3-year diploma ^a	51(41.8)	2.95±.32		2.09±.21		3.29±.49	
	4-year bachelor ^b	4(3.3)	2.78±.15		2.14±.24		3.71±.41	
College satisfaction	Bad	4(3.3)	3.03±.13	.029 (.993)	2.12±.32	1.392 (.249)	3.38±.28	4.538 (.05)
	Nor bad	66(54.1)	3.06±.39		2.13±.24		3.18±.45	
	Good	45(36.9)	3.07±.40		2.16±.24		3.44±.50	
Academic performance (score)	Very Good	7(5.7)	3.09±.47	1.155 (.330)	2.33±.19	.337 (.799)	3.71±.55	2.624 (.054)
	4.0≤	10(8.2)	3.20±.51		2.21±.20		3.59±.39	
	3.0~3.9	89(73)	3.07±.39		2.14±.24		3.33±.49	
	2.0~2.9	22(18)	2.96±.32		2.15±.29		3.16±.46	
Drinking	1.9≥	1(0.8)	3.39	1.445 (.240)	2.27	.401 (.671)	2.63	10.094 (.001)
	Don't drink ^a	13(10.7)	2.99±.22		2.10±.36		2.78±.45	
	I drank, but not now ^b	37(30.3)	3.16±.43		2.14±.23		3.41±.41	
Major Satisfaction	drink ^b	72(59)	3.03±.39	.229 (.876)	2.17±.22	.808 (.492)	3.36±.48	4.875 (.05)
	Bad ^a	5(4.1)	3.01±.25		2.00±.27		3.84±.19	
	Nor bad ^a	52(42.6)	3.04±.39		2.16±.24		3.21±.47	
	Good ^b	54(44.3)	3.09±.39		2.17±.25		3.40±.47	
Motive	Very Good ^b	11(9.0)	3.04±.44	2.578 (.057)	2.12±.24	3.225 (.025)	3.62±.50	10.098 (.001)
	Employment	54(44.3)	3.03±.29		2.10±.22		3.15±.40	
	Recommendation	28(23.0)	2.95±.42		2.13±.26		3.20±.49	
	Aptitude	37(30.3)	3.19±.46		2.23±.24		3.65±.48	
	Other	3(2.5)	3.26±.39		2.41±.24		3.19±.80	

Table 2.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stress coping and degree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Mean±SD	Range
Self-Efficacy	3.07±.39	1~5
Stress coping	2.15±.24	1~3
Adjustment to College Life	3.32±.49	1~5

3.3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대처,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스트레스 대처($r=.404,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대처는 자기효능감($r=.199, p<.005$)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stress coping,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Stress cop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Self-Efficacy	1		
Stress coping	.199 (.005)	1	
Adjustment to College Life	.134 (.142)	.404 (.001)	1

3.4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차이를 나타낸 전공 만족과 지원동기, 음주와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난 스트레스 대처를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분석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1.569로 2에 가깝고 0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912~0.992로 1.0 이하의 값이었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008~1.097로 기준치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스트레스 대처($\beta=.318, p<.001$), 전공만족($\beta=.282, p<.001$), 지원동기($\beta=.237, p<.01$), 음주($\beta=.219, p<.01$)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34.4%였다(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college life adaptation.

Spec.	B	SE	β	t	p
Constant	.256	.275		.930	
Stress coping	.639	.153	.318	4.162	<.001
Major Satisfaction	.193	.051	.282	3.778	<.001
Motive	.127	.041	.237	3.074	<.01
Drinking	.157	.053	.219	2.955	<.01
F(p)	16.829(<.001)				
R2	.365				
Adjusted R ²	.344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살펴보고, 변수 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높여 대학 생활에 적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5점 만점에 3.07점으로 중간 기준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 Kim[19]의 연구에서 3.33점, Kang & Kim[20]의 연구에서 3.73점을 나타내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의 동기부여 중 하나이며 개인적 신념과 결부되는 자신감에 해당된다[21]. 특히, 간호대학생은 이론과 실습의 전공 교과를 교육받으면서 여러 분야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상자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신념이 존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는다면 여러 환경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대처는 총 평균 3점 만점에 2.15점으로 중간 기준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같은 도구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Baek[22]의 연구에서는 평균 1.34점으로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간호대학생들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점수가 다소 높은 것은 간호대학생의 경우 일반대학생 학업량보다 과중한 것을 입학하기 전부터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학생 개인이 스스로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Yang 등[23]의 연구에서도 간호대

학생은 일반대학생에 비해 지원동기와 전문적 목표 의식이 뚜렷하여 과중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암묵적으로 견딘다고 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야기하며 이는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24].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지체계와 제도방안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조사된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은 총 평균 5점 만점에 3.32점으로 중간 기준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의 적응 하부요인의 각 평균은 학업활동 3.81점, 개인심리 3.58점, 사회체험 3.24점 대인관계 3.17점, 진로준비 2.77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o[25]의 3.30점과 비슷한 수준이며 3, 4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Kim & Park[26]의 2.94점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에게 학업의 성취가 무엇보다 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척도라고 생각하며, 학업이 안정적인 때 개인도 성취감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또한, 임상 실습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체험 기회 및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하부요인 중 진로준비의 점수가 낮은 것은 간호학 특성상 전문직이며 국가 면허를 취득함과 동시에 취업에 대한 보장이 상당히 이뤄져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와 대학생활 적응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대학생활 적응은 전공 만족과 지원동기, 음주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 만족이 높을수록, 지원동기가 확고한 편이 보통인 경우보다, 대인관계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대학생활 적응력이 높았다.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 대처 ($\beta=.318, p<.001$), 전공만족($\beta=.282, p<.001$), 지원동기 ($\beta=.237, p<.01$), 음주($\beta=.219, p<.01$)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34.4%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아 간호대학생이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지켜야 하며, 전문직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학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처방식 지원체계 프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및 대학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기적인 교수자 면담, 학과 동아리 활동, 졸업 후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 등 실제 임상의 상황과 유사한 학습과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적절한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교수자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제공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의 의의는 과중한 학업과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는 간호대학생에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효율적인 자기효능감과 증진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K도에 소재하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 추후 연구 대상자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고,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방안,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생 지도, 교수 전략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E. K. Byun, S. H. Park.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on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1, pp.323-330.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323>
- [2] H. Y. Kim. 420 thousands of University & College Students gived up their's Studies Midway, that Follow Growing Trend Annual [Internet]. H. Y. Kim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ress release, c2018[cited 2018 October 12], Available from: <http://blog.naver.com/hvkim0417/221375913174> (accessed June 10, 2019)
- [3] S. Y. Min, "Adjustment Experiences of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15, No.4, pp.409-419, 2006. DOI: <https://dx.doi.org/10.1111/j.1365-2648.2000.01534.x>
- [4] H. J. Choi, E. J. Lee,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9, No.2, pp.261-268, 2012. DOI: <https://dx.doi.org/10.7739/ikfn.2012.19.2.261>
- [5] S. Hurtado, D. F. Carter, A. Spuler, "Latino Student Transition to College: Assessing Difficulties and Factors in Successful College Adjustment",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Vol.37, No.2, pp.135-157, 1996. DOI: <https://dx.doi.org/10.1007/BF01730113>
- [6] J. H. Hwang, H. S.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Self-Efficacy, Dance Activity Satisfact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in Dance. Official Journal of the Koeran Society of Dance Science [Internet].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2014 Apr;31(1):37-52. DOI: <http://dx.doi.org/10.21539/ksds.2014.31.1.37>
- [7] S. O. Park. Self-efficacy. Seoul: Parkyoungstory :: 2018.
- [8] S. H. Yang, I. O. Sim,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reativity, Self Efficacy and Nursing Process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16, No.5, pp.612-622, 2016.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6.16.05.612>
- [9] J. W. Lee, Y. S. Eo, Effect of Clinical Stress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7, No.2, pp.125-134, 2013.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3.7.2.125>
- [10] K. S. Han, "The Moderating Effects of Flo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life,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 18, No. 5, pp. 490-496.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5.490>
- [11] J. E. I, Y.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21, No.2, pp.69-96, 2009. DOI: <https://doi.org/10.17927/tkjem.2009.21.2.69>
- [12] Y. H. Kim. Relationship of Self 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6, No.3, pp.307-315, 2009.
- [13] S. O. Choi, J. K. Park, S. H. Kim,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2, pp.182-189 2015. DOI : <https://doi.org/10.5977/ikasne.2015.21.2.182>
- [14] J. H. Choi, M. J. Park,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Method to Evaluate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Associate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7, pp.340-349, 2013. DOI : <https://doi.org/10.5392/JKCA.2013.13.07.339>

[15] Y. H. Kim,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a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1 pp.104-113, 2016.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6.17.11.104>

[16] H. J. Jung, M. J. Chae,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Academic Stress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Vol.8, No.8, pp. 403-417,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DOI: <http://dx.doi.org/10.21742/AJMAHS.2018.08.15>

[17] H. Y. Hong, H. K. Oh, Y. I. Han. The lived socialization experience of the diploma nursing students. Qual Res, Vol.8, No.2, pp.37-50, 2007.

[18] H. J. Shin, C. D. Kim. A Validation Study of Coping Strategy Indicator(CSD).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4, No.4, pp.919-935, 2002.

[19] S. Y. Lee, Y. Y. Kim.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3, pp.309-18, 2016.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6.14.3.309>

[20] H. S. Kang, Y. Y. Kim.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18, No.5, pp.617-25.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5.617>

[21] M. Bong, Skaalvik, E. M. Academic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How different are they reall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Vol.15, No.1, pp.1-40. January, 2013.
DOI: <https://doi.org/10.1023/A:1021302408382>

[22] Y. M. Baek.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Factor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in college students-Focus on Neuroticism and Conscientiousn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18, No.6, pp.219-27.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6.219>

[23] Y. K. Yang, K. S. Han, M. H. Bae, S. H. Yang.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Korean Society of Stress Medicine: 2014 Mar 31;22(1):23-34.
DOI: <http://dx.doi.org/10.17547/kjsr.2014.22.1.23>

[24] Lovallo, William R, H. Y. Ahn, K. H. Shin. Stress and Health. Seoul, Korea, Hakjisa, 2018.

[25] M. S. Ko.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15, No.10, pp.280-91, 2015.
DOI: <http://dx.doi.org/10.5392/IJCA.2015.15.10.280>

[26] E. A. Kim, K. I. Park. Factor Affecting Adjustment of Freshmen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Journal of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20, No.2, pp.234-43,

2014.
DOI:<http://dx.doi.org/10.5977/ikasne.2014.20.2.234>
Welfare Review Vol.37 No.1, March, pp.515-542, 2017.
DOI : <http://dx.doi.org/10.15709/hswr.2017.37.1.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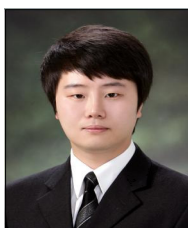
김 중 경(Jung-Kyung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7년 8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2017년 2월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간호관리학, 시뮬레이션 교육, 삶의 질

김 원 종(Won-Jong Kim) [정회원]



- 2015년 8월 :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9년 2월 :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2019년 2월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노인간호학, 삶의 질

이 선 주(Sun-Ju Lee) [정회원]



- 2014년 2월 : 공주대학교 간호보건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8월 : 공주대학교 간호보건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기본간호학, 만성질환